과테말라

-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2023년 1월 1일 주일 아침에 GMI 과테말라 선교센터가 세워진 "쑴빵고"라는 지역에 새로 개척된 'LA GRACIA'(은혜)교회에서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명 남짓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예배였는지 모릅니다.

지난해 훈련을 잘 마친 1기 신학생들과 이번에 입학한 45명의 2기생들이 2023년 2월부터 1년 동안의 훈련과정을 시작합니다.

신학생들이 훈련을 잘 감당하며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예정된 많은 사역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몰도바

- 정석영 선교사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푸드 박스를 만들어서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몰도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푸드 박스를 만들어 지역 교회를 통해 전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히 저의 사역과 대학원 공부 그리고 별도의 언어공부 병행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 몰도바 땅에 가득히 전해져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중국

- 조○○ 윤○○ 선교사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3년은 마치 폭풍우를 정면에서 맞으며 지나온 시간인듯 합니다.

이제 이곳은 방역정책이 갑작스레 전면개방으로 전환하면서 고령의 노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무수한 노인들이 사망했으며 춘절(설날)을 앞두고 방문한 도시 자녀들의 전파로 더 많은 노인들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폭풍의 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이 땅과 민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주세요.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CT 결과 전이될 가능성이 보이던 것이 없어졌으나 일단 상황이 지난번과 똑같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최성목 선교사
중풍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튀르키예 이혜영 선교사
정기적인 CT, MRI 검사 결과, 천골(꼬리뼈)에 전이된 암은 줄어들고, 암 활동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치가 되어 튀르키예로 돌아가 사역하길 바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선교사
종양 제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단지 신세포암 1기로 결과가 나와서 잔여 암세포 박멸을 위한 표적치료를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
강지애 선교사는 1월 26일부터 새로운 항암치료제를 투여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3주째여서 어느 정도 상태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 양창모 선교사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팔 오병수 선교사
이석증으로 검진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주선민 선교사
막내 세아의 왼쪽 다리 성장판 손상으로 척추가 휘고 있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술을 해서 다리길이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11살로 앞으로 많이 성장할 시기인데 왼쪽다리와 척추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총재: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446. 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02.12.2023

2023년 2월 GMI-GKC 선교사 현황 : 59개국 327명 (자체 파송 76%)

GRACE 선교소식

2023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선교학교 20기 개강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2023년 은혜한인교회는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다음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세계선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1세대를 통해 받은 세계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다음세대에 그대로 이어져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이루어감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은혜선교학교는 우리 GMI 선교의 비전과 영성과 정책에 대하여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계선교 마무리는 막연한 기대감과 단순한 외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이론적으로 준비되고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선교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갖게 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한기홍 목사님 2월 선교일정

▷탈북민 세미나 (2/14-2/16), 한국

▷인도GIGL#7 (2/17-2/24), 인도

한국에서 열리는 탈북민 세미나와 인도 GIGL#7, 신학교 입학식, 개척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 김교역 김주순 선교사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여러 모양들로 힘을 실어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가 비록 전쟁 중에 있지만 저희로 하여금 수도인 끼이브에 좋은 장소를 허락해주셔서 이 때를 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폭격을 피해서 온 지체들을 섬기게 하시고 피해를 입고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지 못한 분들에게 하루에 한 번 급식과 식료품과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일들로 섬기게 하십니다.

또 폭격으로 인해서 난방 시설들이 망가진 지역들에 슬리핑백을 보내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소와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선교센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비록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매일의 하루이지만 우리는 당장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젼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바라봅니다.

특별히 훈련 받고 있는 신학생들과 학교에서 또 줌으로 양육받고 있는 어린 유치원생들과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귀하게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알바니아

- 오판석 정미라 선교사

저희는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며 이땅의 미래인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족들의 반대로 예배에 못나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부모들을 만나며 전한 복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어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수많은 가정들이 부모의 알콜중독, 지병 등으로 매우 열악한 가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가정의 구주로 삼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닮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성공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고 꿈인 아이들이지만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 김태환 주애니 선교사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반자르마신 신학교 58명과 벧엘신학교 8명의 신학생들에게 선교학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며 학생들과 함께 저 역시 많이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연말과 연초에 무슬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일이 많은데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을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가 60%정도 완공되었습니다. 이 장소가 주님의 작은 천국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저와 사역,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 유치원, 보육원 등 이 모든 사역이 주님의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캄보디아

- 김광석 이영미 선교사

2023년을 맞이하며 캄보디아 땅에서 10년 넘게 사역한 결실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직전에 코로나로 인해 꺾였던 사역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악한 상황과 방해 속에서 신앙보다는 생활에 매진하던 성도들이 스스로 찾아와 예배를 사모하고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쓰나오 은혜교회와 더 나아가 이 땅의 굳건한 주님의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더불어 이 땅에 넘쳐나는 어린 아이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복음 가운데 이 땅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봄날 언땅을 뚫고 새싹이 나와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주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쓰나오 은혜교회에 활짝 꽃피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태국

- 임진섭 양윤희 선교사

지난 11월 13일 BANGKOK GRACE CHURCH가 마침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3월에 전도폭발과 인카운터를 통해 정착한 성도 가정과 함께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전도폭발 훈련을 온라인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직은 완전히 셋팅이 되지 않아 외부 십자가 설치, 간판(현수막) 설치 등 여러가지 장비들이 잘 셋팅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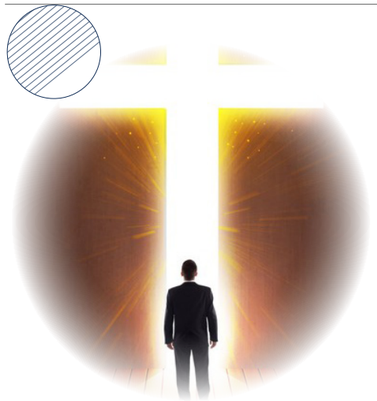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전도폭발 훈련을 온라인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지역 한인교회들과 연합하여 성탄절 공연행사로 보내었고 이제 금년부터 주일학교 파워바이블, 인카운터 그리고 일대일 양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콕 은혜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성화는 "자기부인"으로부터 시작된다

<1분단상 113-2월호>

-김대규 장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다(눅9:23). 이 말씀은 진정한 구원과 성화는 주님 앞에서 "자기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옛사람이 변치 않고 옛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성화에 들어설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나의 생각, 뜻, 사고관, 생활철학, 지식, 고집, 욕망, 명예, 권력, 지위, 소유물, 세상 등 내게 해당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부인"이다. 자신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며, 주의 십자가에 죄 와 함께 자신이 못박혀 죽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부인"은 곧 주의 뜻대로만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일 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삶 속에서 부딪치는 역경이나 문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걸었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위하여 당해야 하는 고난과 핍박들을 감내하는 것을 말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와 선한 싸움인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끝까지 주님을 따른 열 한 제자(가롯 유다 제외)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생업, 가족 등 세상에서 자기의 속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포기하였다. 그리고 주께서 승천하신 후 복음을 위해 겪었던 수난과 심지어 순교했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러한 예일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거는 것이라."(갈2:20)의 말씀은 "자기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이자 신앙고백과도 같다.

그런데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분과 상관없이 "자기부인"이 없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Key는 진정으로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주 밖에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진정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하나 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 인격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내 육신이 작은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신다. 주 안에서 믿음이 말씀으로 실체화 된 모습인 것이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는 "자기부인"을 하게 마련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것이다. 참 회개, 참 회복을 통하여 구원과 함께 성결한 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성화의 삶을 사는 자인 것이다.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케 됨으로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자가 되어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다.

주안에 내가, 내안에 주와 주의 말씀이 거하는 참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인 것이다. 이러한 자, 이러한 삶을 누리는 자는 보이는 이 세상에 묶여 있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상을 뛰어 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주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복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려면 참 회개, 참 회복을 이루어 가며 눈에 보이는 세계에 현혹되지 말고 내쳐야 한다. 내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 주 예수님, 성령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리 볼 때 지금 우리는 진정으로 주 안에 온전히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참 회개, 참 회복, 참 자기부인을 통하여 믿음이 장성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성숙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성화를 거쳐 영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고로 "자기부인"은 우리가 주 안에 있도록 주께서 친히 명령하신 말씀이다.